

국내 첫 불교장작 오페라 '아미타불' 법장비구의 구도과정 '가극으로'

10월19일 '운문스님 불교음악 40년 음악회'서 초연
 국악선율에 피아노 신디사이저 등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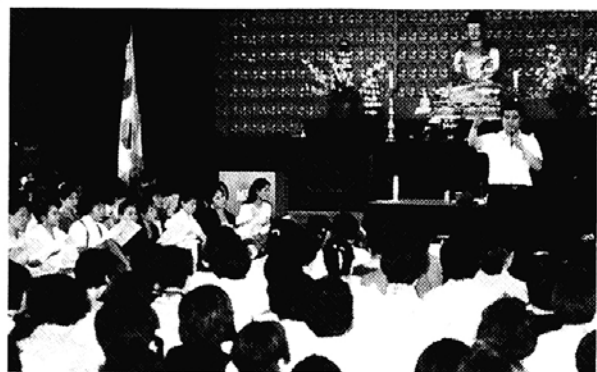
정부기 교수 작곡

"...나무아미타불, 구원을 받으려는 모든 중생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결단코 정각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부귀와 왕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해 중생구제와 성불을 위해 48서원을 세워 아미타 부처님이 된 법장비구의 구도 과정이 오페라로 만들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작곡가는 '초파일 송가', '육바라밀' 등을 작곡한 정부기교수(중앙대 작곡과). 정교수는 그동안 소품류의 찬불가 작곡에만 전념해왔지만 시창각을 함께 이용한 효과적인 불음포교를 해왔다는 생각에서 94년 교곡 '붓다의 노래' 이후 5년만에 오페라를 만들었다. 정교수의 이번 '아미타불'은 최근 수년동안 대

작 국악교성곡이 주류를 이뤘던 불교 음악계에 신선한 장르인 오페라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오페라라는 드라마와 연극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는 오페라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규모와 시간 구성면에서 오페라보다 적은 것이 특징. 오페라 '아미타불'은 오는 10월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운문스님의 불교음악 40년 기념음악회'에서 초연된다. 이번 음악회는 특히 우리나라 현대 찬불가의 효시를 이루며 '보현행원' 등 5백여 찬불가를 작사한 운문스님의 불교음악 40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

"누구든지 중생을 구하려는 간절한 원(願)을 세우고 수행 정진 한다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



▷법장 비구의 구도과정을 그린 오페라 '아미타불' 연습장면.

니다. 이러한 구법 정신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불자들이 다짐 시켜야 하는 꼭 필요한 정신입니다. 시각과 청각이 조화됐으며 연극적인 요소가 많은 오페라라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적절한 음악 장르라 생각해 대중적으로 알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법장 비구의 구법 정신이 담겨있어 이번 작품에 대해 정교수는 "음악의 높낮이를 폭넓고 다양하게 구성해 극적인 효과와 장엄미를 연출 시키려고 했다"며 "신디사이저를 활용한 대중적인 음율도 많이 가미시켜 일반인들도 친근감 있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금과 아쟁 등 흥겨운 국악 선율을 기본으로 양악기인 피아노와



▷운문스님



▷정부기교수

피아프오르간, 현대악기인 신디사이저 등 동서양 악기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오선지 위에 그려낸 '아미타불'의 하이라이트는 아미타부처님이 된 법장비구와 함께 비구와 보살, 청중들이 다함께 합창하며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장면. '서원의 발원' 및 '수행' '성불' 등 총 4장으로 구성된 이번 작품에는 환희의 춤과 악마의 춤, 열불송을 위한 춤 등 감정의 기복을 무용으로 나타낸 것도 눈길을 끈다. 이번 공연에는 경주시, 불음합창단 등 1백20여명이 연합으로 무대에 서고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협연한다. 법장비구의 테너 박지웅과 석가세존역의 바리톤 장광석 등이 솔로로 출연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매월 둘째 월요일 신라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는 경사모 회원들.

탐방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천년불교문화 세계에 알린다"

회원 1백여명 경주공부·답사등 열심

경주에 대해 알고 나아가 세계에 널리 알리려는 순수 민간 모임이 있어 화제다. 경주출신인들이 주축이된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경사모)'이 바로 그것.

경사모는 지난해10월 구흥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이 고향친구와 경주출신의 주변인사들에게 '경주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자'는 제의를 한 것이 계기가 돼 결성됐다.

현재 경사모에는 구흥일이사장을 비롯 황수관박사(연세대학교수) 이현세씨(만화가) 이경희선생(서예가) 이지태씨(한보산업대표) 장만화씨(前서울은행장) 이태형씨(국회의장 비서관) 우창복씨(울촌법무법인대표) 김병태씨(의료기기상사대표)등 53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경사모는 매월 둘째 월요일 저녁에 불교학자나 고고학자등을 초청, 신라문화와 역사에 대한 학술회의를 갖는등 '경주공부'에 열정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라사개관' '신라의

고분문화' '신라불교개요' '종수지리화상으로부터 고도경주' '석굴암불상의 특징' '고고인류학적측면에서 본 서라벌' 등의 강의를 진행되면서 모임의 취지가 널리 알려지자 다른지역의 인사들도 참여를 희망해 지금은 문호를 개방한 상태다.

경사모는 회원수가 1백명에 달하면 사단법인을 설립, 회지나 강의를 발간하고 정기적인 경주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하는등 좀 더 체계적인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

또 기금을 적립한후 경주관련 연구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발맞추어 경주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작업에도 동참할 방침이다. 이지태 경사모총무이사(46)는 "경사모는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니라 경주를 제대로 알고 널리 알리려는 모임"이라며 "경주를 사랑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문화에 대한 강한 긍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02)696-3910 이윤호 기자 (yhnlee@buddhapia.com)

金魚 만봉스님 불화전

부산국제신문 전시관, 10월1-10일

이 시대 최고의 단청장 만봉스님(종교부형문화재48호 기능보유자)의 '말없는 법문'을 듣는 전시회가 열린다.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전시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부모은중경, 심육나한상, 극락도, 영산회상도, 해수관음상 등 1백여점이 선보인다. 해수관음상은 바다의 도시 부산 불자들을 위한 스님의 신작으로 최초로 선보이는 불화이다. (051)500-5224

화제의 전시

전통문화재조각회전

서울 관문사서, 10월1-13일

전통불교조각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전통문화재조각회(회장 이재순)가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서초구 관문사에서 제6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전을 연다.

지정문화재 조각기능인으로 지정된 작가 53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말적금강'(김정길) '석가모니불좌상'(이진형) '관세음보살입상'(송근영) '나한존자상'(김광원) 등 목·석조 조각품 1백여점이 선보인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문화재 조각기능인들의 우수한 전통적 기예를 엿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02)3460-5300

티벳불교미술의 진수 '불기회'

화정박물관 개관기념 특별전...도록도 발간

서울 이태원동에 200여평 규모로 화정박물관을 개원한 한빛문화재단(이사장 한광호)이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티벳 불교미술의 진수인 탕카는 물론 불경과 불구류 등을 선보이는 개관 기념 티벳미술 특별전을 갖는다.

특별전에는 한이사장이 40여년간 수집한 티벳 불교미술품 수백여점 가운데 130여점을 엄선, 선보인다. 불화와 불상, 불탑, 불경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 특별전에는 만다라, 여래, 보살, 불모와 조사, 나한, 수호존·본존, 호법존 등이 진열된다. 또 뛰어난 조형성을 보여주는 불상과 티벳 특유의 형식을 지닌 불탑, 다양한 제작방



▷국내 첫 티벳미술 전문박물관으로 16일 개관한 화정박물관에 소장 전시되고 있는 '까담파 불탑'.

식을 보여주는 사경, 그리고 정밀한 공예기술을 지닌 불구도 출품돼 티벳 불교의 정신세계를 보여줄 전망이다.

이완우 학예연구실장은 "티벳은 인도, 서역, 네랄, 중국 등의 불교미술을 널리 수용해 다양한 미술양식을 갖고 있다"며 "이 때문에 티벳의 불교미술은 아시아 각국의 문화교류를 비롯해 우리나라 불교미술과의 비교·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전시 의미를 설명했다. 화정박물관은 이번 특별전 도록(티벳의 미술(Art of Tibet))도 발간한다. 이 도록에는 150점의 티벳 불교미술품이 소개됐다. 오종욱 기자 (gobaouu@buddhapia.com)

외국인 관광객 선호유물 신라금관·반가사유상順

관광공사 설문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재는 신라금관과 허리띠(국보 191·192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78호) 광주철불좌상(국보 311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외국인들이 가장 인상 깊은 전시실로 꼽은 곳은 불교조각실, 신라실, 고려자기실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관광공사가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내·외

국인 807명을 대상으로 '유물 선호도' '전시실 선호도' '기념품 선호도' 등의 설문조사에 따른 것.

국적별로 유물 선호도를 세분해 보면 영어권 관광객들은 광주철불좌상, 일본인들은 신라금관과 허리띠, 중국어권 관광객들은 경복궁 모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국인 관광객들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신라금관과 허리띠,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순으로 좋아했고 3위는 백제금동용통풍래산향로(국보 287호)로 조사됐다.

또 박물관 기념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지는 질문에는 내·외국인 평균 46%가 구입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선호하는 기념품으로는 책자 및 출판물류를 꼽았다.

문화 단신

문화재 모니터요원 모집

문화재청은 오는 2000년을 시작으로 문화재 전반에 관한 민간 모니터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모니터요원을 모집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2000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할 제1기 모니터 요원 지원신청을 오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받은 뒤 특별로 5명 내외씩 모두 80명을 선발키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ocp.go.kr)를 참조하면 된다.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

강릉시는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오죽헌 시립박물관 역사문화관에서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강산 관련 사진, 그림 등 350여점이 출품돼 민족의 명산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태와 작품 하나 하나에 심혈을 기울

인 우리 조상들의 장인 정신을 체험할 수 있다. (0391)40-4499

문경 문화유산도록 발간

경북 문경시는 최근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을 소개한 도록을 발간했다. 4X6배판 120쪽 분량의 컬러판으로 제작된 이 도록에는 도립공원 문경새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가운데 명품에 속하는 300여점이 수록돼 있다.

이밖에 문경시 지정문화재 40여점도 수록돼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보 지장보살님 점안 및 지장신림 대법회 죽

"도솔천 내원궁의 지장보살님께서 고불산 성곡사에 장엄하게 나투셨습니다."

고불산 성곡사의 지장전은 중앙에 27m크기의 지장보살상과 주보살상의 좌대와 뒷편에 병풍처럼 2m 크기의 지장보살상 500분을 모셔 도솔천 내원궁의 장엄을 재현 하였습니다.

"지장보살의 위대한 정신을 믿고 따르고 예배공경하는 자는 인천(人天)의 복보(福報)를 받고, 태어날 때마다 제왕(帝王)이 된다."

지장보살본원경 상권 염부중생업김듬

무료 예약 버스 운행

※행사 당일(10월 10일) 「조계사」 정문앞에서 오전 06:00~07:30분까지 서울-성곡사행 왕복버스가 출발합니다.

행사종착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예약을 하시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곡사 교통안내

● 경주시내 : 마곡사, 유구행 버스를 이용, 방문리 하차. 목적지 : 시내에서 성곡사까지 15분 소요

● 전 안 I.C : 공주방향 도로 이용해 공주시내 진입, 금강교 전에서 마곡사 방향 10분 거리.

● 유 성 I.C : 공주방향 도로 이용해 공주시내 진입, 금강교 지나쳐 마곡사 방향 10분 거리.

대전 유성방향

← 공주시의 버스 터미널

상서주유소

← 공주중고

중부주유소

← 동양농기구 수리센터

← 마곡사 (예산)방향

성곡사

일시 : 불기 2543년 10월 10일(일) 음력 9월 2일 오전 10시

장소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산 2번지 천불대참회도량 고불산 성곡사 지장전

문의처

천불대참회도량 고불산 성곡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산 2번지

전화:(0416) 853-3355 / 전송:(0416) 853-2928

정암사(성곡사서울포교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2동 241-49호

전화:(02) 683-3993/전송:(02) 2619-4619